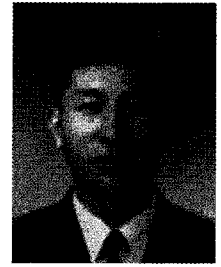


새롭게 주목 받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김건백 프란치스코
LIG손해보험 법인2본부 이사
대인대물손해사정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 의료업계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행위 중 또는 이후에 의료전문서비스의 오류 및 탈루(Errors & Omissions)로 인한 환자의 신체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적손해배상책임을 짐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상품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공제사업이 있다. 의사배상책임공제사업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1981년부터 병 의원 개원의사, 근무의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제 규약에 의해 보상하는 사고는 현행 손해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지만, 보상금액이 낮아 공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제회 가입율은 전체회원대비 약 40%이고, 연간 사고처리 건수는 300건 내외로 알려져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10억(업계추정 보험료)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가입법례를 보면 대형종합병원은 1청구당 3억, 총 보상한도액 10억 이내, 중소형병원 및 의료원은 1청구당 2억 총 보상한도액 5억 수준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올해 4월 7일 제정,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등 강화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시행, 구체적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될 경우 의사 및 병원의 책임이 가중되고, 소송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던 것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조정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권리인식 강화에 따른 분쟁민원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손해율 상승은 병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식변화로 의료배상 보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보험사의 손해율 안정과 더불어 병원의 보험료 부담도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따른 변화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을 의료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은 총 81,789명이다. 진료 유형별 유치실적은 외래환자 64,777명(79.2%), 건강검진 11,653명(14.2%), 입원환자 5,359명(6.6%)이다. 이는 2009년보다 36%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 비율은 0.1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15까지 연간 3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8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선도업체 공개모집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의 전문병원들도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전문능력을 갖추기 위한 의료상품개발, 환자유치, 제반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을 위해 LIG 손해보험에서는 의료배상과 관련한 내·외국인 통합담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내·외국인 통합담보 프로그램은 단일증권에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여 건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내·외국인 구분 및 수술/비수술 구분을 두어 병원의 특성에 맞게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도입은 의료분쟁의 발생 건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는 건별 보상금의 엄청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소송문화가 발달해 있는 선진국의 외국인과 관련한 분쟁사고는 병원의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줄 만큼 큰 배상판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간다면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등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료계는 업무의 아웃소싱 효과와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